



## 갑질 총무담당 즉각 인사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하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자들은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삼척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워크숍을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 안 노래방기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나왔고, 한 여성주무관은 해당 영상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총무담당은 해당 영상을 교체하여 워크숍을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디서 분위기 깨냐”며 영상 교체 요구를 묵살하였고 동승하던 여성주무관들이 모멸감을 느끼며 계속해서 영상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휴게소에 도착하여 교체를 요구했던 여성주무관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버스에서 내리라고 으박을 지르며 공개적인 장소임에도 욕설과 막말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주무관을 다른 차에 탑승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삼척교육지원청 내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할 총무담당이 정당한 요구를 한 여성주무관에게 갑질을 한 것에 대해 총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강교노)은 총무담당의 워크숍 갑질 사건을 인지하고 삼척지부 순회 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경위와 해명을 요구하였다. 갑질 근절 담당관인 행정과장은 해당 사건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총무담당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자신과 해당 주무관의 개인적인 일이며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황당한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다.

또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핑계로 당일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예정되어 있던 정당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강교노는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면담을 통해 성희롱, 갑질,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이 있는 총무담당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갑질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하였다.

강교노는 이 모든 책임의 근원인 갑질 총무담당을 즉각 인사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갑질 총무담당을 비호한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갑질 근절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행정과장을 문책할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선 것을 천명한다.

1. 갑질 총무담당을 즉각 인사조치하고, 감사를 착수하여 징계하라!
2. 사건을 은폐하고 직무유기한 교육장 및 행정과장을 문책하라!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